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준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www.yosiamun.com

"큰스님, 빛으로 다시 오소서"

혜암종정 다비식 열리던 날

다비(茶毘)란?

'다비(茶毘)'는 선업(善業)을 두어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불교의 생사관에 입각한 독특한 장례방법으로 화장(火葬)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비는 육신이 해체되는 마지막 과정으로 고로움의 바다를 영원히 벗어나 해탈로 가는 불교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죽음이 삶과 다르지 않는 하나의 수행과정으로 승화하는 의식이다. 그러므로 불교사상과 열반의 이념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불교의 상징이다.

다비는 범어 자피타(Jhapita)의 음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불교전래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전승되고 있다.

생사관 따른 화장 苦 벗어나 해탈로

4대가 모여 이루어진 육신은 필요에 따라 가합(假合)된 것이며, 때가 되면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때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으로 보는 불교의 시각은 다비식을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엄숙한 문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비의식의 과정은 삭발 목욕 세수 세족 착군 착의 착관 정좌 입감 기감 거화 하화 창의 습골 기골 쇄골 산골 순으로 진행된다. 다비의식을 상세히 기록한 〈석문가례초〉에 따라 다비장 설치와 의식이 행해진다.

'혜암 스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갔다네.
원당암에서 60년을 꽃과 함께 살았던 -.
풀꽃들이 곤히 잠든 한겨울에,
홀연히 공(空)으로 돌아갔다네.'

'생사일여(生死一如)' '생사즉 열반(生死卽 涅槃)'

불교에서는 살고 죽는 일이 다르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예정돼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의식과정인 다비(茶毘)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여는 의식이다. 미혹의 근저에 있는 무명의 티끌을 불살라 버리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번뇌를 끊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수행의 도정인 것이다. 그래서 고통도 슬픔도 없다. 다비는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무언의 법을 듣는 법석이다.

불자들 연신 합장배례

6일, 겨울날씨 치고는 유난히 포근한 가운데 봉행된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의 다비식도 열반의 길을 중생들에게 보여준 장엄한 법석이었다.

혜암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봉행된 6일 해인총림 가야산문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불자들의 추모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불자들은 일주문부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혜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연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다.

영결식이 시작된 오전 11시, 해인사 보경당 앞에는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3만여 대중들로 가득 차, 넓은 경내가 오히려 좁게 느껴질 정도.

오후 1시 영결식이 끝나고, 우렁찬 종소리가 세 번 울리며 스님의 법구 앞에서 영축게가 시작됐다. 무상계게 염불에 이어 "연화대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하는 발인의식 다비식장으로 법구가 이운됐다.

'큰스님의 가풍 용맹정진, 가시는 듯 다시오소서' 등의 오색만장 2천2백장을 앞세우고 3천여스님 2만7천여 불자들이 스님의 영정과 법체를 3㎞ 떨어진 다비장으로 이운했다. 행렬은 인로왕번 명정 삼신번 오방번 불교기 무상계 법성게 만장 향로 영정 위패 법주 독경단 법구 문도 장의위원 비구 비구니 신도 순으로 300m에 걸쳐 이어졌다.

행렬주변에 모여든 사하촌 주민과 관광객, 신도들은 한목소리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국화 장미꽃으로 장엄된 법구가 지나갈 때 연신 합장반배를 하며, 눈물을 훔친다.

해인사 비구니 스님들이 정성들여 하나 하나 종이 꽃잎을 붙여 만든 연화대가 안치된 다비장에는 2시간 전부터 신도들이 자리를 잡아 온 산이 형용색색의 중생 꽃으로 장엄되어 있었다.

극락세계에서는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해 연꽃으로 장엄된 연화대는 윗부분에 녹색, 몸통부분에 연분홍빛 연잎을 붙여 높이 2.1m, 지름 3m로 하나의 아름다운 대형 연봉우리다.

오후 2시경 법구가 다비장에 도착하고, 법구를 연화대에 안치하는 입감의식에 이어 1.5m높이의 참나무로 입구를 막았다.

'이 불은 탐진치 삼독의 불이 아니라 여래의 등인 삼매(如來一登三昧)의 불이니-, 이 빛을 보고 자성의 광명을 돌이켜 쌍림(雙林)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요.' 라는 거화편(擧火篇) 낭독과 함께 원로회의 의장 법전 종산 활안 지관 스님등 원로 스님, 성법 원각 여연 도각 스님등 문도들, 원택(총무부장) 현고(기획실장) 스님 등 총무원 소임자, 용성문도회 홍교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30여명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거화(擧火)봉에 불을 붙여 연화대에 올기는 하화(下火)에 들어갔다.

3만여 추모행렬 가야산에 가득
2천2백여 만장 가시는 길 장엄

'세인연이 화합하여 잠시 존재했다가 사대가 흩어지니 다시 공으로 돌아갑니다. 몇 년이나 허깨비의 바다에 놀았습니까. 오늘 껍질을 벗어버리니 나는 듯 경쾌하고 가벼우시겠습니까'

불을 지피는 순간 연화대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불자들의 천수경, 아미타경 합송 속에 평생 수행으로 일관했던 혜암스님의 법구는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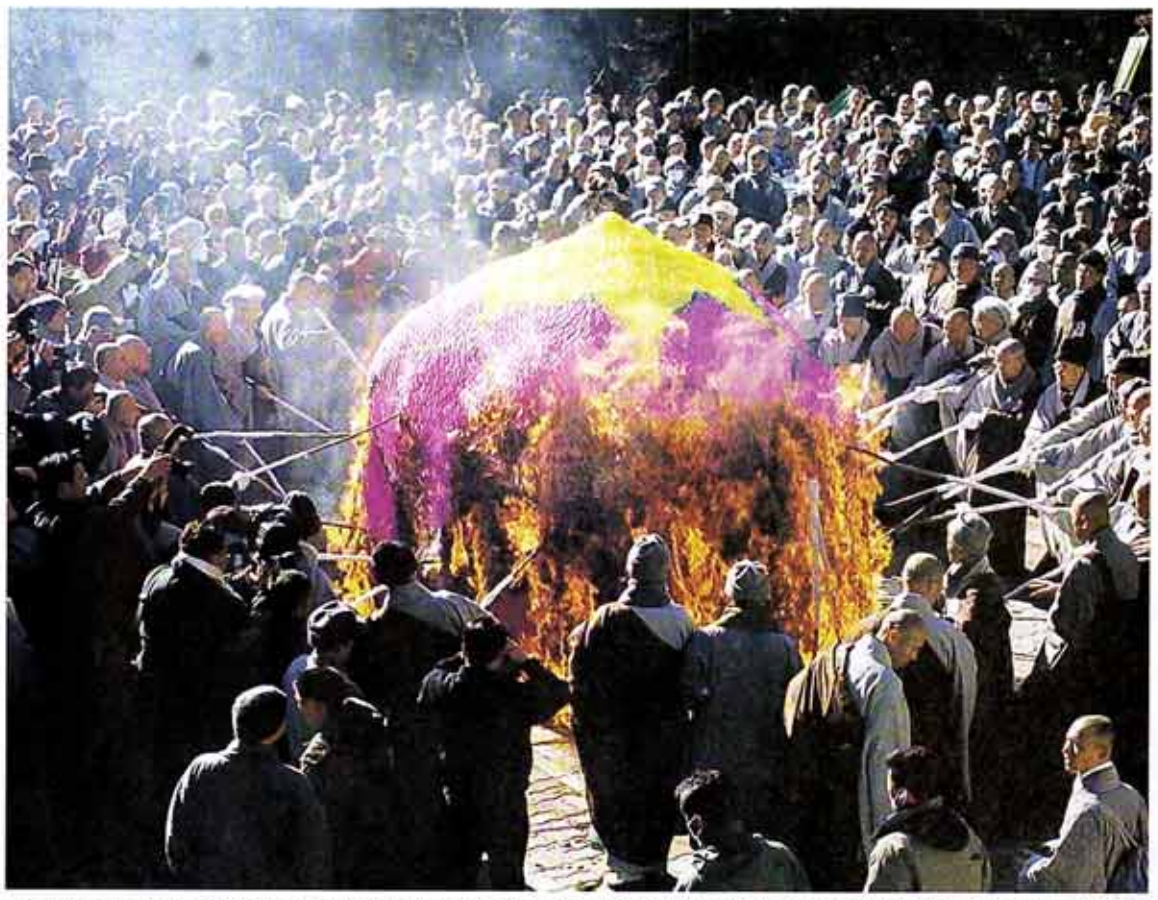
연화대 옆에 있던 이대자행(73세, 대구)보살은 "스님, 집에 불났어요. 빨리 나오세요"라고 외치며 "한평생 공부만 해오시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라고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사리86과 미소굴로

스님의 법체가 다시 땅 물 불 바람으로 돌아갔음을 알려주듯 7일 가야산에는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렸다. 오전 5시 타다 남은 뼈를 뒤집는 기골(起骨)을 하고, 습골은 오전 9시 원로회의 의장 법전,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과 문도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습된 법체는 뼈를 부수는 쇄골을 위해 두개의 항아리에 담겨져 오전 10시 15분경 스님이 주석했던 원당암 미소굴로 이운됐고 상좌 스님들이 사리를 수습했다. 스님의 사리는 영골 등에서 총 86과의 영롱한 오색 사리가 수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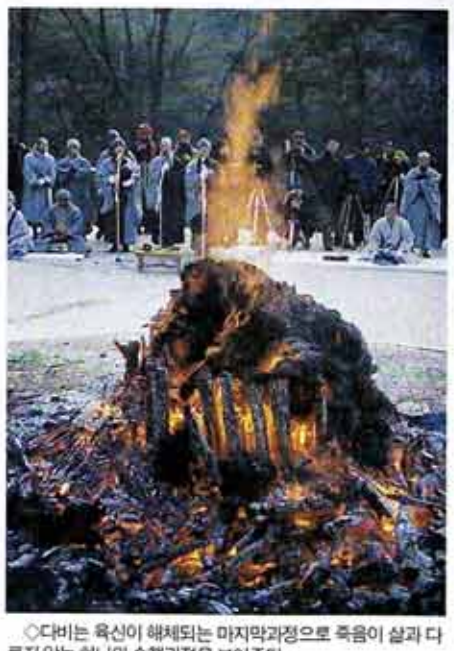
이어 환귀본토진언인 '옴 바자나 사다모' 를 세 번 외우고, 온 곳도 간곳도 없으며 보탤 것도 감할 것도 없는 본래의 진실한 모습으로 돌아간 스님과 대화하듯 그동안 존재했던 것이 한낱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되새기는 산좌송(散座頌)을 부르는 것으로 다비식은 회향됐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연화대에 불을 붙이는 순간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불자들의 천수경 · 아미타경 합송속에 평생 수행으로 일관했던 혜암스님의 법구는 서서히 사그라 들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은 없다. 공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니 즐거움만 있다.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다비의식은 삶과 죽는것이 다르지 않다는 불교의 생사관을 보여준다.

혜암스님 원적에서 다비까지 동영상으로 buddhanews.com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다비는 육신이 해체되는 마지막과정으로 죽음이 삶과 다르지 않는 하나의 수행과정을 보여준다.

◇다비식 전인 5일 해인사 비구니스님들이 정성들여 한장 한장 종이꽃잎을 붙여 대형 연화대를 조성하고 있다.

◇수만송이 국화와 장미로 장엄한 법구가 사부대중의 '나무아미타불' 염송과 오열속에 해인사를 나서고 있다.

◇큰스님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마음이 담긴 2천2백여 오색만장 행렬이 온산을 덮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聖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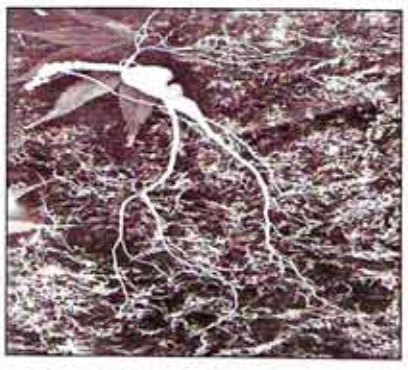
산삼장뇌환?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買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